

현안과 과제

- 경제적 행복감 현실과 전망
- 새 정부下 국민행복감 상승 기대 크다



Executive Summary

□ 경제적 행복감 현실과 전망- 새 정부下 국민행복감 상승 기대 크다

○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 '국민 행복 제고'

- 새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
 -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속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에 기반한 정책을 수행할 예정
- 새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어느 정도이고, 행복감 제고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행복감 여전히 낮다

- 내수 부진, 생활물가 불안 등의 국내 경기 하락세에 따라 2012년 하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40.4로 전기대비 0.8p 하락함
 - 각 항목별로도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은 전기대비 상승했지만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과 전반적 행복감은 하락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013년 상반기 128.6으로 2년만에 상승 전환되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음
 - 2013년 상반기 국내 경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전기대비 7.6P 상승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vs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

- 2012년 12월말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이상 학력의 고소득, 미혼의 20대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추정
- 반면,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 저학력의 60대 이상의 자영업자로 추정

○ 국민 행복 제고 가능성 점검

- 2012년 12월 현재 우리 국민 80.6%의 경제적 행복감은 1년 전과 비교해서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한 것으로 조사됨

- 대외 불확실성, 내수 부진 및 생활물가 불안정 등으로 우리 국민들 중 51%는 경제적 행복감이 1년 전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 29.6%는 '나빠졌다'고 응답함. 단지 19.4%만이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졌다'고 응답함
- 소득 증가와 취업은 개인의 경제적 행복감 상승, 소득 감소와 물가 불안은 개인의 경제적 행복감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조사됨
 - 경제적 행복감의 개선에는 소득 증가(61.9%), 취업(24.9%), 자산가치 상승(9.1%) 등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경제적 행복감이 낮아진 원인으로는 소득 감소(39.5%), 물가불안(33.8%), 자산가치 하락(11.4%)이 가장 많았음
- 우리 국민의 42.5%는 2013년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함
 - 2013년 새 정부 출범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응답자가 42.5%로 2012년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졌다는 응답자(19.4%)의 2배가 넘어 기대감이 높았음
- 특히,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가계부채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됨

○ 시사점

- 첫째, 국민 대다수가 소득감소와 물가 불안이 경제적 행복감을 낮추는 원인으로 판단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
 - 기후변화, 환율 급변동 등 생활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별로 물가 안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계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보육·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의 정책 보완도 필요
- 둘째, 국민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전망 확충이 요구
 -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 증가에도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대기업 투자 유인과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대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공급
 - 특히, 경제적 행복감이 급락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재교육 등 지원 체계를 갖추고 연령별 일자리 연계 방안 등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다양화
- 셋째, 2013년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히는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세부화
 - 세계 경기의 높은 변동성이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수출 급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
 - 또한 가계부채의 위협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부채를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으로 유도하고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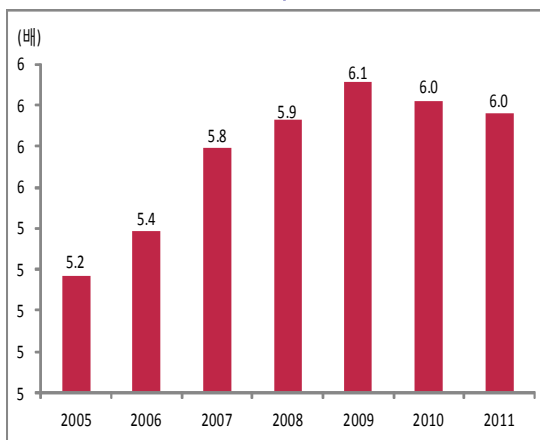
1.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 '국민 행복 제고'

○ 새 정부는 '국민 행복', '민생'과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모든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임

- 경기 둔화, 양극화 심화 및 삶의 질 악화가 우리 국민의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투자·소비의 부진에서 시작된 내수 위축이 일자리의 저하와 영세 자영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
- 내·외수, 대·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취약계층 및 지역 간 양극화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한편, 지역사회 결속력의 약화, 높은 체감 물가와 실업률, 높은 자살률과 범죄율 등이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한편,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속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에 기반을 둔 정책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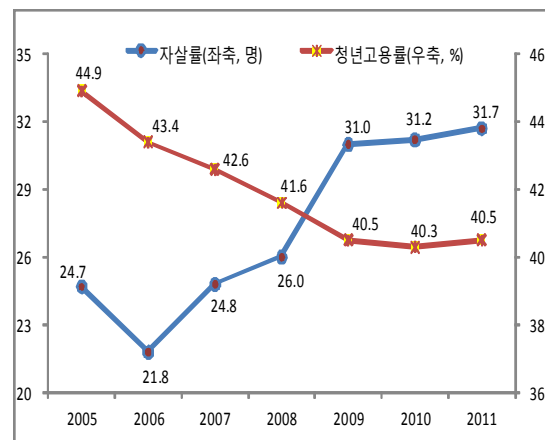
○ 새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은 어느 정도이고, 행복감 제고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도출해 볼 필요성이 높아짐

< 소득 양극화 지표(5분위배율) 추이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5분위배율은 균등화 시장소득의 도시 2인가구 기준임.

< 자살률과 청년고용률 추이 >



자료: 통계청.
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이고, 청년 고용률은 15세부터 29세임.

2. 경제적 행복감¹⁾ 여전히 낮다

1) 경제적 행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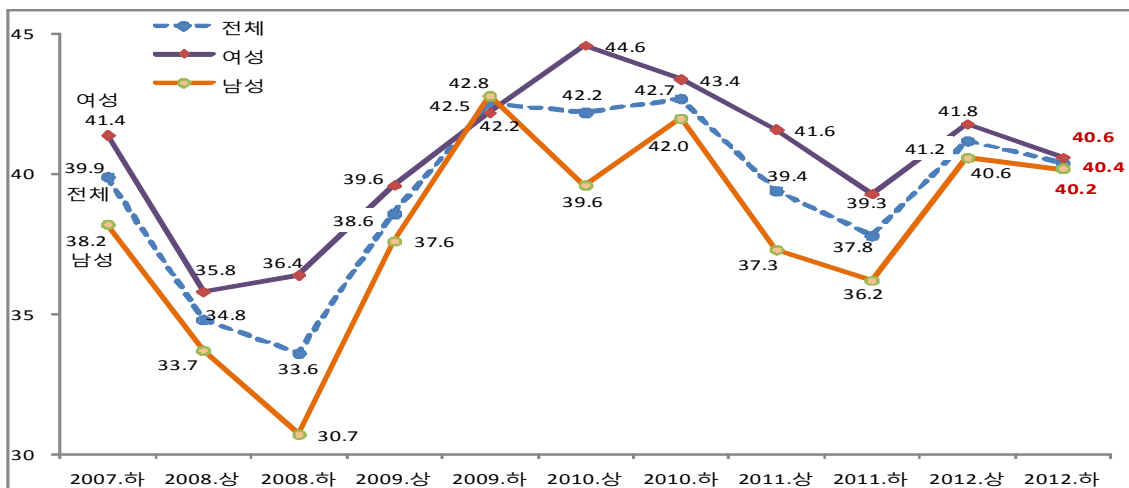
○ 2012년 12월 현재, 경제적 행복지수²⁾는 국내 경제 부진 등으로 지난 조사(2012년 7월)보다 0.8p 하락한 40.4를 기록. 반면,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년 만에 상승 반전

- 2012년 상반기(10회) 조사에서 41.2로 상승했던 경제적 행복지수가 2012년 하반기 11회 조사에서는 국내 경기 부진 등으로 40.4로 전반기보다 0.8p 하락
- 남녀별로 보면, 여성의 행복지수가 40.6로 전기대비 1.2p, 남성은 40.2로 0.4p 하락. 남녀 간 경제적 행복지수의 격차는 0.4p로 2009년 이후 가장 좁아짐

- 경제적 행복지수의 하락은 2012년 하반기 내내 지속된 내수 부진, 생활물가 불안 등의 국내 경기 하락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3회 연속 하락했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012년 하반기(11회) 전기 대비 7.6p 상승한 128.6를 기록. 이는 2013년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경제적 행복지수의 추이 >



1) 제 11회 경제적 행복지수는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2일까지 5일간 전국의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14명을 전화설문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0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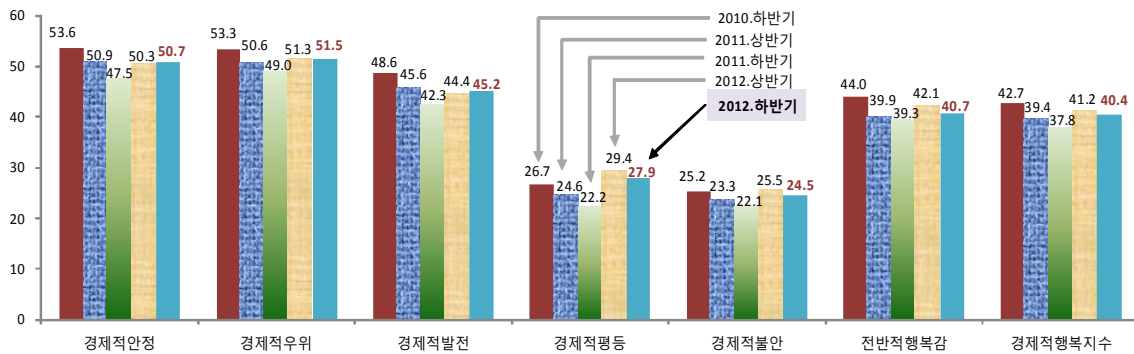
2)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 구성요소, 계산 방식 등 자세한 설명은 별첨 자료 참조.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요소 중 경제적 평등과 경제적 불안이 낮아 전체 수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및 경제적 발전은 경제적 행복지수보다 높았지만, 경제적 평등과 경제적 불안감은 여전히 낮아 경제적 행복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경제적 행복지수의 각 구성요소들 중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은 0.4p, 경제적 우위 0.2p 경제적 발전 0.8p 소폭 상승했지만, 경제적 평등은 1.5p, 경제적 불안 1.0p, 전반적 행복감도 1.4p 낮아져 경제적 행복지수가 소폭 하락함

< 항목별 경제적 행복지수 비교 >



○ 2013년 상반기에 대한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128.6으로 2년 만에 상승 전환

- 2013년 상반기 국내 경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³⁾는 전기대비 7.6p 상승

· 2012년 하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0.8p 하락한 40.4를 기록. 반면, 미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지수는 7.6p 상승한 128.6을 기록하면서 2013년 상반기에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은 소폭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짐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의 추이 >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2009. 상반기	2009. 하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2011. 하반기	2012. 상반기	2012. 하반기	2013. 상반기
남 성	115.0	121.6	127.8	139.8	142.8	140.6	122.0	114.8	115.6	126.0
여 성	131.1	129.2	129.6	148.2	149.6	153.8	137.4	135.8	126.2	131.2
전 체	123.1	125.6	128.8	144.2	146.4	147.6	129.8	125.6	121.0	1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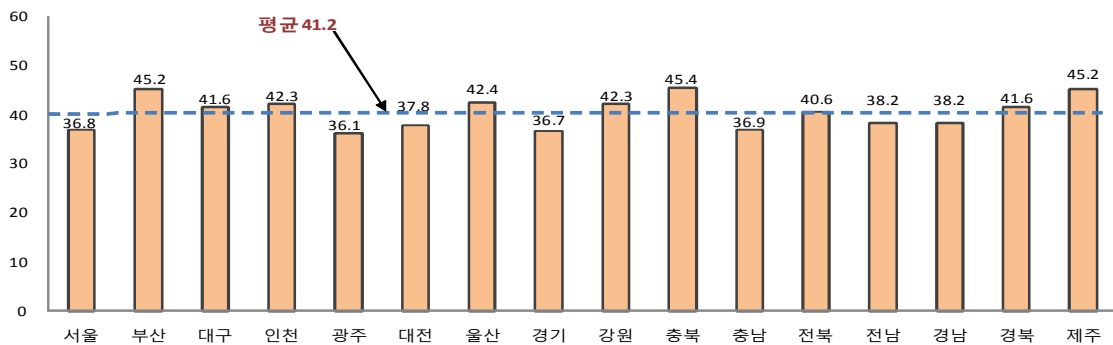
3)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점 만점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100보다 커질수록 미래의 경제적 행복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으로 해석함

2) 부문별 조사 결과

○ (지역별) 충북, 부산, 제주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았으며 광주, 경기, 서울의 행복지수는 낮았음

- 16개 중 7개 시도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30점대로 낮았고 시도 간 격차도 확대됨
 - 경제적 행복지수는 충북이 45.4로 가장 높았고, 부산과 제주가 45.2로 공동 2위를 차지하였음. 이들 시도의 경제적 행복감은 전기대비로도 부산(6.1p), 충북(6.3p), 제주(5.0p)로 상승폭을 높였음
 - 서울과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 인천, 대구의 경제 행복지수는 평균대비 높았으나, 광주, 서울, 대전 지역의 경제적 행복감은 낮았음
- 최근 지역개발의 기대감이 높아진 충북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음
 - 지역별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충북은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에 선정되면서 세종시와 연계된 발전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고, 제주(45.2, 2위)는 국내외 관광 수요 증가 등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높았음
- 경제적 행복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전기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경북이 149.2로 가장 높았고, 경기 144.2, 충남 142.0, 순으로 나타남. 이들 지역은 2013년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거나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

<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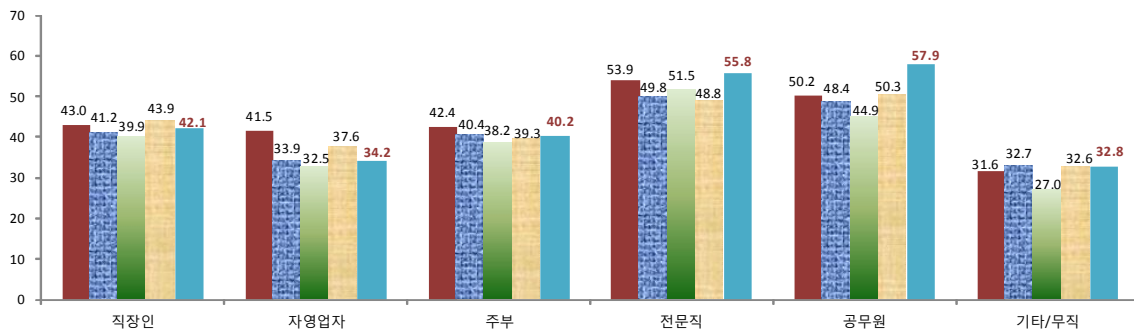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경제적 행복지수	36.8	45.2	41.6	42.3	36.1	37.8	42.4	36.7	42.3	45.4	36.9	40.6	38.2	38.2	41.6	45.2
지역별 순위	14	2	7	5	16	12	4	15	5	1	13	9	10	10	7	2
경제적 행복 예측	138.8	132.2	116.2	124.6	117.2	125.8	121.4	144.2	138.8	135.4	142.0	127.0	113.0	115.6	149.2	116.2

○ (직업별)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

-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경제적 행복감만이 전기대비 하락
 - 2012년 하반기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공무원과 전문직으로 전기대비 각각 7.6p, 7.0p 상승한 57.9, 55.8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반면,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전기대비 3.4p 하락한 34.2로 4회 연속 30대에 머물렀음

- 하지만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직장인을 제외한 전 직업군에서 상승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자영업자, 주부, 기타/무직군은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태도를 보임. 하지만 전기대비로는 자영업자(10.6p), 주부(23.4p), 기타/무직(11.4p) 모두 상승하여 2013년 상반기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은 개선됨

< 직업⁴⁾별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전문직	공무원	기타/무직
경제적 행복지수	42.1	34.2	40.2	55.8	57.9	32.8
경제적 행복 예측	134.6	121.2	124.4	200.0	154.2	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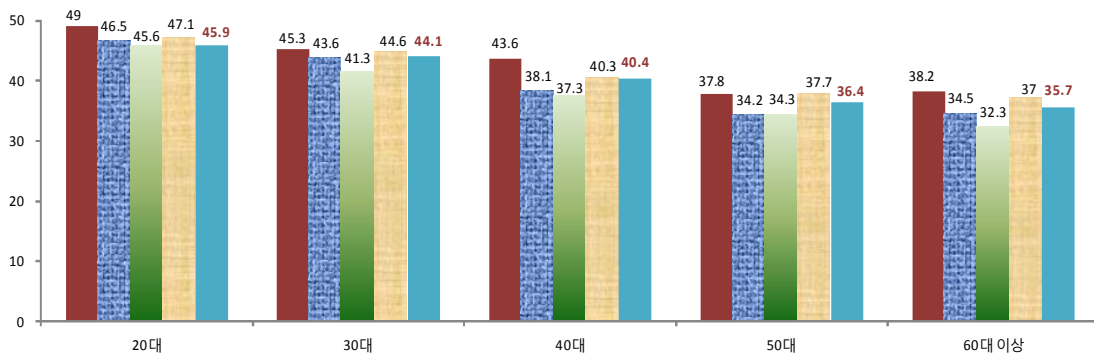
○ (연령별)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하락함

-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았음
 - 경제적 행복감이 평균보다 높은 연령대는 20~30대이나 20대가 전기대비 1.2p 하락한 45.9, 30대도 0.5p 하락한 44.1을 기록
 - 50대 이상 고령자의 경제적 행복감은 평균보다 낮고 전기대비로도 하락

4) 각 항목의 우측 칸은 2012년 상반기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20~30대가 높았지만 20대는 전기대비 하락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상승함
 - 2013년 상반기를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연령층은 30대로 전기대비 12.6p 상승한 156.6으로 가장 높았음. 반면, 50대 이상 고령자들은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자세를 유지

<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제적 행복지수	45.9	-1.2	44.1	-0.5	40.4	0.1	36.4	-1.3	35.7	-1.3
경제적 행복 예측	146.0	-2.8	156.6	12.6	137.8	12.4	97.0	1.8	100.0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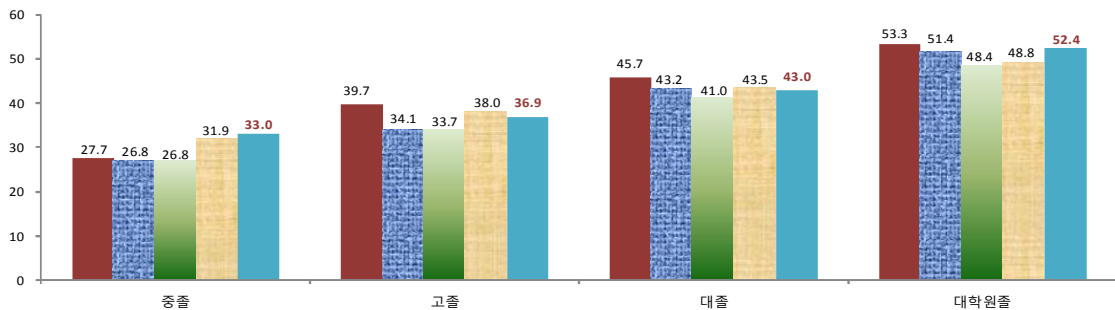
○ (소득별) 저소득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큰 폭으로 하락

- 저소득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하락하면서 고소득층과 경제적 행복감이 최대 2.5배 격차를 보임
 - 소득별로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낮은 계층은 2천만원 미만으로 전기대비 6.3p 하락한 28.7을 기록.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계층은 1억 원 이상으로 70.6을 기록하여 저소득층과 거의 2.5배의 경제적 행복감 격차를 보임
- 소득이 높을수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자세를 유지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1억 원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전기대비 상승함
 - 소득 규모별로는 '6천~8천만원 미만' 소득자보다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고 '2천만원 미만' 소득자가 가장 비관적인 자세를 보임

○ (학력별) 고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평균보다 낮았음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음
 - 대학원졸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3.6p 상승한 52.4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 학력자는 전기대비 1.1p 상승했지만 33.0으로 가장 낮게 조사됨
-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중졸 이하는 100 이하로 매우 비관적임
 - 대졸 이상 학력자들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평균보다 높았지만 중졸 이하는 95.4로 100보다 낮아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보임

< 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경제적 행복지수	33.0	1.1	36.9	-1.1	43.0	-0.5	52.4	3.6
경제적 행복예측	95.4	3.8	124.2	15.6	137.6	7.6	130.0	-3.4

○ (혼인 상태별)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경제적 행복감이 하락했지만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기대비 낙관적으로 변화

-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기혼자보다 더 높았음
 - 경제적 행복지수는 미혼자가 43.4로 기혼자의 39.7 보다 높았음
-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미혼자가 150.6으로 기혼자의 122.6보다 높았고, 그 격차도 28p 상당히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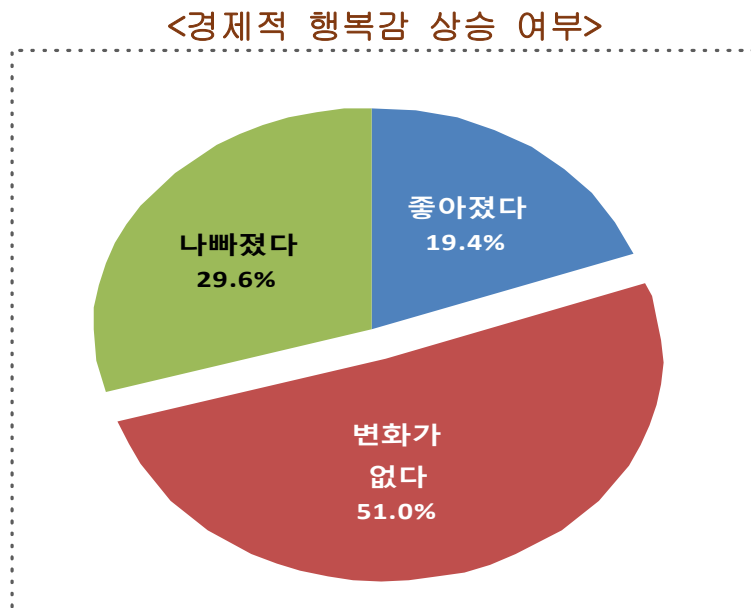
<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

	기혼자		미혼자	
경제적 행복지수	39.7	-1.0	43.4	-0.5
경제적 행복 예측	122.6	7.6	150.6	6.4

3. 국민 행복 제고 가능성 점검

○ 2012년 12월 현재 우리 국민 80.6%의 경제적 행복감은 1년 전과 비교해서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한 것으로 조사⁵⁾됨

- 귀하의 경제적 행복감은 1년 전과 비교해 어떠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1,014명 중에서 51.0%(518명)은 경제적 행복감이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고, 29.6%(299명)는 1년 전과 비교해 나빠져 우리 국민 80.6%의 경제적 행복감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응답자 중 19.4%(197명)만이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졌다고 응답함
 - 응답자들 중 20~30대, 미혼, 전문직 또는 공무원 종사자,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행복감은 좋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기혼이면서 50~60대, 자영업자, 2천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들의 경제적 행복감은 1년 전과 비교해 악화됨
 - 이는 대외 불확실성과 더불어 내수 경기 부진과 높은 생활물가 상승, 일자리 불안 등이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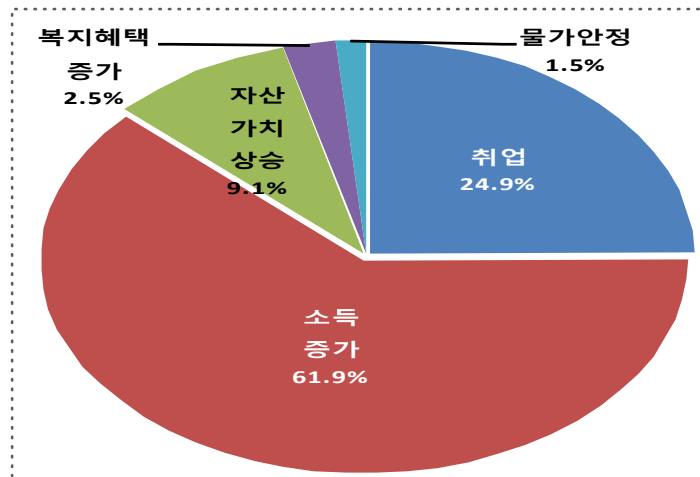
5) 금번 조사는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2일까지 5일간 전국의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14명을 전화설문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08%임.

○ 개인의 경제적 행복감 상승은 소득과 일자리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음

- 경제 행복감이 좋아졌다면, 그 원인은?

-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졌다”는 응답자는 19.4%(197명)임
- 이들은 소득 증가(61.9%), 취업(24.9%), 자산가치 상승(9.1%)순의 원인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됐다고 응답함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진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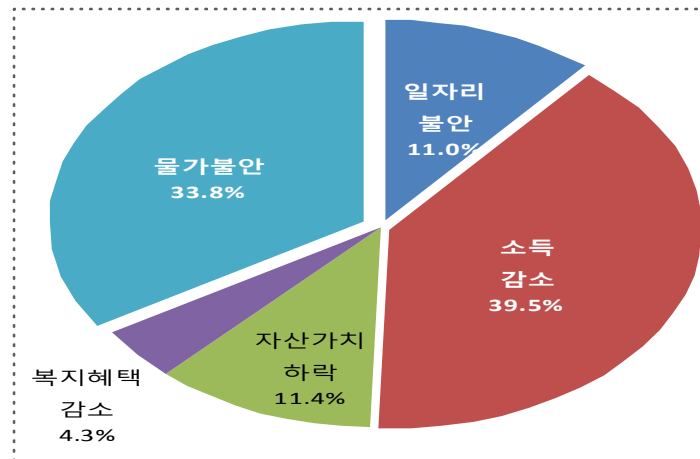


○ 개인의 경제적 행복감 하락은 소득 감소와 물가불안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음

- 경제 행복감이 나빠졌다면, 그 원인은?

- 경제적 행복감이 “나빠졌다”는 응답자는 29.6%(299명)임
- 경제적 행복감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서는 소득 감소(39.5%)와 물가불안(33.8%), 자산가치 하락(11.4%) 순으로 조사됨

<경제적 행복감이 낮아진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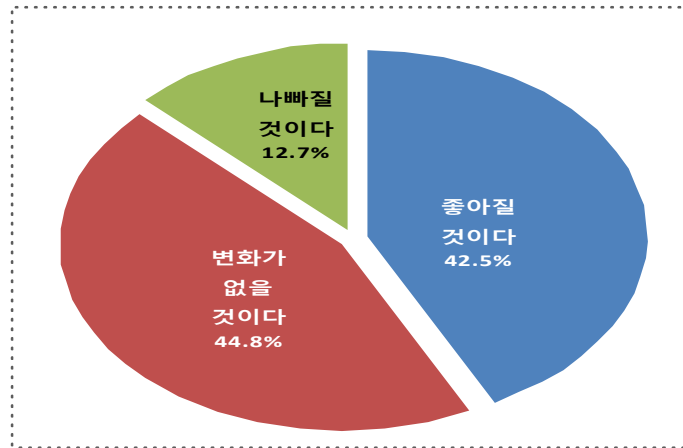


○ 우리 국민의 42.5%는 2013년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

- 2013년 새 정부 출범이 귀하의 행복감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는가?

- 응답자 1,014명 중 새 정부 출범에도 경제적 행복감이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자는 454명(44.8%)이었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자도 431명(42.5%)으로 2012년 행복감이 좋아졌다는 응답자(197명)의 2배가 넘었음
- 반면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상관없이 경제적 행복감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응답자는 129명(12.7%)에 불과했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적 행복감의 변화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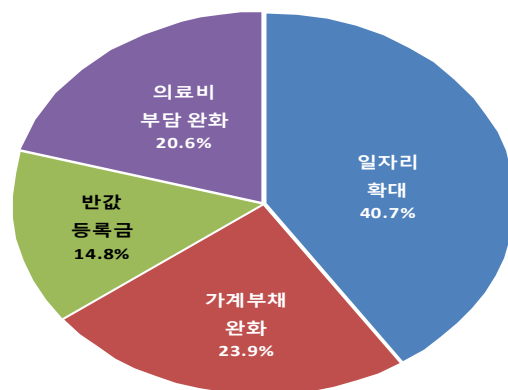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은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가계부채 완화 등의 공약이 경제적 행복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

- 새 정부가 귀하의 경제적 행복감 제고를 위해 집중해야 할 공약은? 라고 질문한 결과,

<새 정부에서 집중해야 할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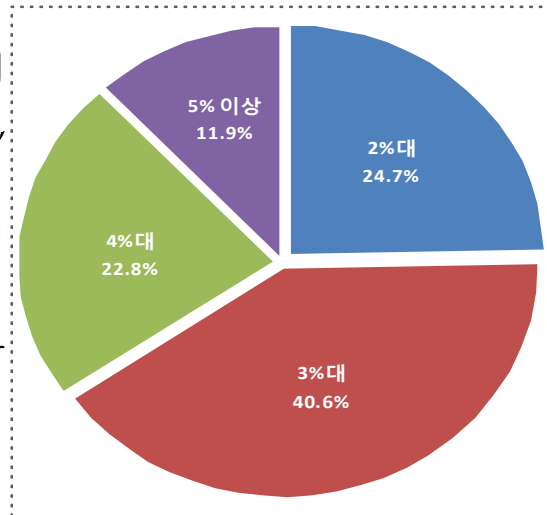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중 40.7%는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공약이 경제적 행복감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
- 한편, 가계부채 완화,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공약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23.9%, 20.6%로 조사됨



○ 우리 국민들의 65.3%는 새 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2~3%대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MB정부 5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3.0% 정도 인데, 새 정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달성가능한지? 라고 질문한 결과,

<새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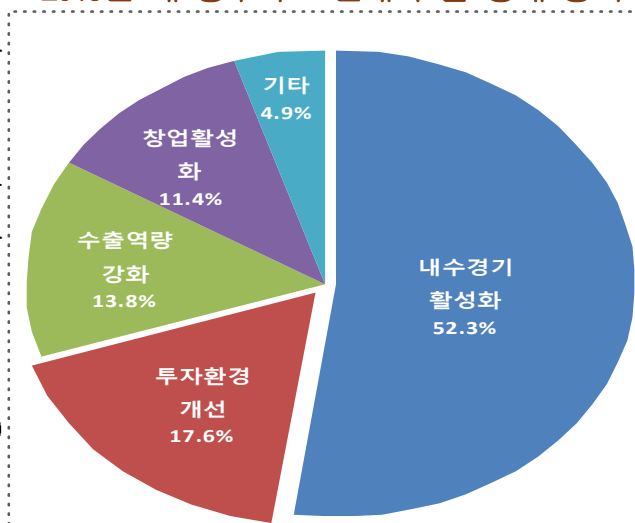


- 전체 1,012명 중 40.6%(411명)는 새 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3%대', 24.7%(250명)는 '2%대'로 응답하여 우리 국민의 65.3%는 2~3%대의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응답자 중 34.7%는 새 정부가 4~5%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우리 국민들은 새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경기 활성화, 투자 환경개선 등의 경제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새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경제 정책이 필요한가?

<2013년 새 정부가 보완해야 할 경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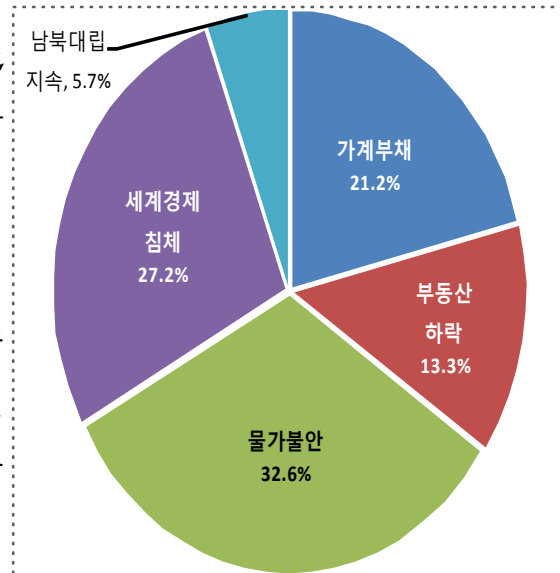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의 52.3%는 '내수경기활성화'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꼽았고, '투자환경 개선'과 '수출 역량 강화'는 17.6%, 13.8%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벤처 등 창업 활성화(11.4%)가 그 뒤를 이음

○ 우리 국민들은 물가 불안과 세계경기 침체, 가계부채 등이 2013년 새 정부의 경제 운용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2013년 새 정부의 경제 운용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라고 질문한 결과,

<2013년 새 정부 경제 운용의 위협요인>

- 전체 1,009명 중에서 32.6%가 물가 불안, 27.2%는 세계 경기 침체, 21.2%는 가계부채 순으로 2013년 새 정부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고 응답함
- 부동산 하락 13.3%, 남북대립 지속 5.7%도 2013년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4. 시사점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 2012년 12월말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이상 학력의 고소득·미혼의 20대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추정
 - 지역별로는 충북, 부산, 제주의 경제적 행복감이 높았음
 - 이들 지역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6개월 전보다는 높아졌지만,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낙관적이지 않았음
- 한편,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저학력의 60대 이상의 자영업자로 추정됨
 - 취약 계층으로 구분되는 이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로 소폭 하락하였지만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은 소폭 상승하여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음

- 2013년 새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낮은 경제적 행복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
 - 첫째, 국민 대다수가 소득감소와 물가 불안이 경제적 행복감을 낮추는 원인으로 판단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
 - 2013년에도 기후변화,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동, 공공요금 인상 등이 생활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각 요인별로 물가 안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임
 - 특히, 가계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보육·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출 감소 등 정책 보완이 필요
 - 둘째, 국민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망 확충이 요구됨
 -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 증가에도 일자리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대기업 투자 유인과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대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
 - 특히, 경제적 행복감이 급락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과 재취업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높음
 - 또한 청년, 중장년, 고령자별로 고용 상황이 다른 만큼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연령별로 차별화하고 다양화해 나가야 함
 - 셋째, 2013년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체계화시켜야 함
 - 세계 경기의 높은 변동성이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수출 급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
 - 가계부채의 안정된 관리를 위해서도 취약계층의 부채를 장기 및 원리금 분할 상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 정책의 세부화를 강구해야 함
 - 또한, 2013년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수급 조절을 통한 거래 활성화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야 함

기업정책연구실 조호정 선임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홍유립 전문연구원 (2072-6243, ylhong@hri.co.kr)

<별첨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

-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로 명명

○ 경제적 행복지수 작성의 목적

-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경제·사회 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종합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함

<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 >

		이론 및 근거	내용
①	경제적 안정 지수	Maslow(1934) Need theory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②	경제적 우위 지수	Frank Robert(1986)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
③	경제적 발전 지수	Daniel Kahneman(1979) Prospect theory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④	경제적 평등 지수	Veenhoven(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⑤	경제적 불안 지수	Okun(1976) Misery Index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 경제적 행복지수의 계산 방식

- 경제적 행복지수(EHI)는 '5개 하위지수' 와 '전반적 행복감' 의 종합으로 이루어짐
-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
- 경제적 불안은 다른 4개 하위지수와 반대로 계산. 따라서 값이 높을수록 불안감은 낮아짐을 의미함
-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EHI = \frac{\frac{\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5} + \textcircled{6}}{2}$$

○ (경제적 행복 예측)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즉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 경제적 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
-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의 비율의 차에 100을 더하여, 10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BSI 산출방식과 동일)
- 예로써 '예'가 60% 이고 '아니오'가 40% 이면 60 - 40 = 20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
-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 중간값 100점임

○ 경제적 행복지수의 설문문항

구분		질문	답변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① 경제적 안정	나(또는 귀댁의 가장)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1)그렇다 (2)반반이다 (3)아니다
	② 경제적 우위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③ 경제적 발전	나의 소득,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④ 경제적 평등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⑤ 경제적 불안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⑥ 전반적 행복감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경제적 행복 예측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1)예 (2)아니오	

<별첨 2> 제 11회 경제적 행복지수의 부문별 수치

< 2-1.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경제적 안정	50.0	57.3	51.6	45.2	48.6	48.4	52.1	44.0	53.6	57.3	51.2	50.4	49.2	43.8	56.3	52.8
경제적 우위	45.8	53.6	53.6	48.8	44.3	52.4	54.9	52.8	56.0	50.8	51.6	56.0	48.4	46.5	51.6	58.9
경제적 발전	42.4	44.0	39.5	45.2	43.6	41.1	49.6	48.8	50.4	46.0	45.2	48.0	43.1	37.1	49.2	50.4
경제적 평등	16.0	38.7	35.1	29.0	18.2	19.4	35.2	23.0	32.3	31.9	23.8	27.4	23.8	34.9	31.0	30.2
경제적 불안	19.4	33.1	30.2	29.0	23.9	23.0	23.8	23.4	21.0	26.2	20.2	21.8	22.1	27.7	17.9	30.2
전반적 행복감	38.9	45.2	41.1	45.2	36.4	38.7	41.8	34.9	41.9	48.4	35.5	40.5	38.7	37.5	42.1	46.0
경제적 행복지수	36.8	45.2	41.6	42.3	36.1	37.8	42.4	36.7	42.3	45.4	36.9	40.6	38.2	38.2	41.6	45.2
지역별 순위	14	2	7	5	16	12	4	15	5	1	13	9	10	10	7	2
경제적 행복 예측	138.8	132.2	116.2	124.6	117.2	125.8	121.4	144.2	138.8	135.4	142.0	127.0	113.0	115.6	149.2	116.2

< 2-2. 직업별 경제적 행복지수 >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전문직	공무원	기타/무직						
경제적 안정	53.1	-1.1	41.5	-0.3	51.9	4.2	75.0	16.7	81.8	4.8	31.3	-4.9
경제적 우위	51.5	-0.2	45.4	-2.5	55.2	2.4	83.3	16.6	69.6	7.3	42.7	-2.2
경제적 발전	54.6	0.3	33.1	-6.6	38.3	6.5	58.3	12.5	69.6	10.3	21.8	1.0
경제적 평등	27.9	0.9	24.9	-4.7	29.9	-1.2	25.0	0.0	23.6	-7.3	35.4	-1.7
경제적 불안	25.7	-1.2	21.6	-1.3	19.6	-5.2	66.7	25.0	37.5	13.5	25.3	0.9
전반적 행복감	41.4	-3.5	35.3	-3.5	41.4	0.6	50.0	0.0	59.3	9.3	34.2	1.6
경제적 행복지수	42.1	-1.8	34.2	-3.4	40.2	0.9	55.8	7.0	57.9	7.6	32.8	0.2
경제적 행복 예측	134.6	-2.0	121.2	10.6	124.4	23.4	200.0	66.6	154.2	13.0	101.2	11.4

주)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직전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

< 2-3.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제적 안정	56.1	-0.1	54.8	0.8	54.5	3.8	45.6	-0.4	39.4	-5.2
경제적 우위	55.3	-1.3	52.8	-0.3	53.5	3.9	48.9	0.1	46.3	-4.1
경제적 발전	58.2	-2.3	60.0	1.1	47.6	2.9	32.9	1.6	21.9	-0.9
경제적 평등	29.3	1.4	21.9	-4.8	27.9	0.4	28.4	-2.2	38.4	-0.1
경제적 불안	32.4	-1.5	25.9	-2.8	22.7	2.5	22.7	-0.2	21.5	-5.3
전반적 행복감	45.1	-2.0	45.1	0.4	39.5	-2.6	37.1	-2.2	37.5	0.1
경제적 행복지수	45.9	-1.2	44.1	-0.5	40.4	0.1	36.4	-1.3	35.7	-1.3
경제적 행복 예측	146.0	-2.8	156.6	12.6	137.8	12.4	97.0	1.8	100.0	14.0

주)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직전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

< 2-4.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 >

	2천만원 미만		2천~4천만원 미만		4천~6천만원 미만		6천~8천만원 미만		8천~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31.7	-6.7	54.9	5.2	64.0	-1.7	70.5	6.1	70.0	-6.0	79.7	-2.4
경제적 우위	35.9	-6.7	53.7	2.5	62.4	2.9	71.5	7.6	70.0	0.8	85.9	-3.4
경제적 발전	29.2	-6.4	49.6	4.2	57.1	3.7	53.5	-1.5	63.0	14.0	78.1	-2.3
경제적 평등	28.5	-2.9	26.3	-2.7	32.4	3.0	22.6	2.0	34.0	5.2	25.0	0.0
경제적 불안	18.5	-5.6	25.1	0.1	28.9	2.1	29.5	3.4	34.0	3.2	46.9	-3.1
전반적 행복감	28.5	-7.0	41.6	0.2	49.4	-0.6	56.9	1.3	60.0	8.1	78.1	6.7
경제적 행복지수	28.7	-6.3	41.8	1.1	49.2	0.5	53.2	2.4	57.1	5.8	70.6	2.2
경제적 행복예측	106.8	0.8	135.4	10.2	139.6	3.6	155.6	26.8	152.0	21.2	137.5	-5.3

주)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직전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

< 2-5.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 >

	1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10억원미만		10~20억원미만		20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42.5	1.9	51.1	-0.5	55.2	-8.3	69.5	8.8	72.5	-6.8	85.0	43.3
경제적 우위	41.6	-0.4	49.7	-2.0	63.8	3.8	72.3	0.9	76.3	0.2	95.0	11.7
경제적 발전	40.6	-1.2	45.2	1.1	48.5	0.3	54.1	10.2	42.5	-24.9	82.5	49.2
경제적 평등	28.0	-1.8	28.5	-0.3	24.8	-1.8	34.6	2.1	26.3	-6.3	10.0	-40.0
경제적 불안	20.8	-2.5	23.3	0.4	29.2	-1.0	36.0	1.4	32.5	-0.1	42.5	-24.2
전반적 행복감	33.5	-0.1	38.8	-4.4	46.6	-2.8	63.0	5.9	62.5	-4.9	90.0	23.3
경제적 행복지수	34.2	-0.3	39.2	-2.5	45.4	-2.2	58.2	5.3	56.3	-6.2	76.5	15.7
경제적 행복예측	124.6	10.4	123.0	1.8	138.2	11.0	148.0	13.8	150.0	10.8	160.0	-40.0

주)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직전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

< 2-6. 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 >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경제적 안정	36.6	4.8	46.9	2.8	54.2	-0.8	70.6	8.6
경제적 우위	41.0	0.2	48.5	0.5	53.9	-0.2	71.3	16.6
경제적 발전	23.4	0.5	41.5	4.5	51.2	0.1	50.0	6.8
경제적 평등	34.8	-1.8	31.9	-1.7	24.6	-1.5	25.6	-6.7
경제적 불안	22.7	2.8	20.1	-5.3	26.4	0.0	38.1	13.6
전반적 행복감	33.8	0.5	36.0	-2.1	43.9	-0.5	53.8	-0.4
경제적 행복지수	33.0	1.1	36.9	-1.1	43.0	-0.5	52.4	3.6
경제적 행복예측	95.4	3.8	124.2	15.6	137.6	7.6	130.0	-3.4

주)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직전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

< 2-7.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

	기혼자		미혼자	
경제적 안정	50.2	0.1	53.4	0.3
경제적 우위	51.8	0.4	51.5	-0.8
경제적 발전	42.3	0.9	56.5	-0.1
경제적 평등	28.3	-1.7	26.8	0.1
경제적 불안	23.4	-0.4	29.0	-2.3
전반적 행복감	40.1	-1.9	43.1	-0.7
경제적 행복지수	39.7	-1.0	43.4	-0.5
경제적 행복예측	122.6	7.6	150.6	6.4

주)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직전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